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 유형과 부부관계 만족도*

Housework Time Allocation Patterns Among Dual-Earner Coupl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rital Satisfaction

1차원고접수: 2026.01.24. 수정원고접수: 2026.02.28. 최종게재결정: 2026.03.20.

이현아¹ · 권순범²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²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Lee, Hyunah¹Kwon, Soonbum²¹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²Seongnam Research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를 반영하는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잠재유형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맞벌이 부부로 재구성한 커플 자료 3,743쌍을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고, 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은 가사노동의 총량(부부 단위 부담 수준)과 격차(부담의 불평등)를 반영하여 저총량-완만격차형(기준형),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잠재유형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는 남편과 아내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 남편 만족도는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아내 만족도는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기준형 대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을 총량과 격차, 그리고 영역별 편중을 결합한 잠재유형으로 구조화하고, 유형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 부부관계 만족도, 잠재프로파일분석(LP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housework time alloca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and examine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across profiles. Using data from the 2023 Korean Family Survey, we constructed couple-level data and analyzed 3,743 dual-earner couple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used to classify housework allocation patterns, and regression analyses tested differences in husband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across profi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ur latent profil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total housework time and the spousal gap: (1) Low total, moderate gap (reference type), (2) High total, performance-centered wife-skewed, (3) High total, management-centered wife-skewed, and (4) Cooking-focused, wife-skewed. Second, the associations between profile member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differed by spouse. In models adjusting for covariates,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high total, management-centered wife-skewed and cooking-focused, wife-skewed profiles than in the reference profile, whereas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high total, performance-centered wife-skewed and cooking-focused, wife-skewed profiles. This study contributes by conceptualizing dual-earner couples' housework as latent allocation patterns that integrate total workload, gender gaps, and domain-specific concentration, and by demonstrat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ork allo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varies across these patterns.

Keywords dual-earner couples, housework time allocation patterns, marital satisfaction, latent profile analysis (LPA)

* 이 논문은 2024년도 4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Corresponding to 권순범(Kwon, Soonbum)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Seongnam Research Institute) E-mail. sbkwon@snri.re.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맞벌이 가구의 확산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은 사회정책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동일한 시간제약 속에서 임금노동과 가사·돌봄을 포함한 가족책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시간 압박과 역할 긴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조건은 스트레스와 일·가정 갈등을 증대시켜 부부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경험이 형성되는 맥락으로 작동한다(최하영, 진미정, 2020; Flood & Genadek, 2016; Perry-Jenkins, Repetti, & Crouter, 2000; Voydanoff,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 간 가사노동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맞벌이 부부의 일상 경험과 관계의 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통계청 자료(이재림,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30 ~ 40대 생애주기에서 보편적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활시간구조는 여전히 성별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반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맞벌이 조건 자체가 성별 분업 구조를 해소하지는 못하며, 맞벌이 가구의 생활시간은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이 성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통계적 경향은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배분이 성별에 따라 구조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주희, 이기영, 2015; 손문금, 2011; 이승미, 이현아, 2011).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통적인 성별

분업 구조가 여전히 우세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조보배, 2022). 최근 연구는 근로와 가사·돌봄 부담이 결합된 생활시간구조 자체가 구조적인 시간 압박으로 작동하며, 그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오유라, 2025).

이러한 맥락에서 가사노동 분담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이현아, 김은정, 김유경, 2022). 많은 연구에서 상대적 자원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가사노동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요인만으로 성별 격차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증가하더라도 가사노동 부담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현상은 젠더 규범과 성역할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수정, 김은지, 2007; 장인수, 2020; 허수연, 김한성, 2019).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성별 가사노동 분담은 부부 관계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분담의 객관적 수준뿐 아니라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역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 가사노동 공평성 인식은 부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소득, 근로시간, 성역할 태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기은광, 이기영, 2003). 또한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인식될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노혜진, 2024), 반대로 가사노동이 불균형하게 분담될 경우 결혼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부부 모두의 가사분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주익현, 2018), 가사노동이 시간뿐 아니라 계획·조정·책임을 포함하는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며 이러한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될 경우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보고되었다(이슬기, 김주현, 2025).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 분담의 객관적 수준과 주관적 공평성 인식이 모두 부부관계 만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을 평균적 시간 차이가 아닌 참여 양상의 유형화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잠재계층·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은 가사노동 참여를 전반적 비참여형, 전반적 참여형, 특정 영역 집중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현아, 권순범, 2023), 근로·가사·돌봄의 결합 양상에 따라 상이한 일·가정 양립 유형이 형성됨을 제시하였다(안미영, 최지은, 2024).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구조적 조건에서도 가사노동 수행 양상이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사노동 부담을 단일 지표가 아닌 생활시간구조 전반이 결합된 배분 유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해주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은 성별로 비대칭적인 생활시간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가사노동의 총량과 성별 격차, 공평성 인식, 그리고 참여 양상의 이질성이 부부관계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가사노동을 단일 지표나 개별 요인의 효과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특정 영역의 평균적 시간 차이에 초점을 두어, 맞벌이 부부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사노동 배분 구조의 조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가사노동의 총량, 성별 격차, 영역별 편중이 결합된 ‘배분 구조’ 자체가 부부관계 만족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부부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즉, 동일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사노동 배분 양상의 이질성과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만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동시에 검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가사노동은 조리, 청소, 세탁, 가정관리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수행 빈도와 반복성, 책임의 성격이 상이하다. 이로 인해 총 가사노동시간이 유사하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부담이 집중되는 경우 체감 부담과 공평성 인식, 관계 경험은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분 구조가 부부관계 만족도로 연결되는 방식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맞벌이 상황에서 가사노동 총량이 크고 아내에게 편중된 구조는 아내의 관계 만족도에 더 취약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남편의 경우에도 특정 영

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이나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담을 통해 만족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관계 만족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총량과 격차, 영역별 편중을 함께 고려한 배분 구조를 유형화하고, 이를 부부 단위에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을 단일한 시간 지표로 환원하지 않고, 가사노동 총량과 성별 격차, 그리고 영역별 편중을 동시에 반영한 배분 구조를 잠재유형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가사노동 배분 구조 유형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부부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내부의 이질적인 가사노동 배분 구조가 관계 만족과 연결되는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관찰대상 중심 접근을 적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를 잠재유형으로 도출하고, 잠재유형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가사노동의 총량과 격차, 그리고 영역별 편중을 함께 고려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도출된 잠재유형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내부의 이질적 배분 구조가 관계 만족과 연결되는 양상을 정교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을 단순한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공하고, 맞벌이 부부의 관계 지원 및 가족정책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하위영역별 총량과 격차를 반영한 배분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 유형에 따라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3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법정조사로서, 층화계통표집을 통해 전국의 12,062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김영란 등, 2023). 해당 조사는 표집 설계가 엄밀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자료에서 부부관계, 가사노동, 경제상태, 고용 및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전처리한 후, 부부 단위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단위 자료에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이면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가구대표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기타 친인척·기타 동거인에 해당하는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부부 중 1인만 남아 커플 구성이 불가능한 가구는 가구원 수 확인 후 제외하였다.

이후 분석대상은 가구대표와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는 가구만을 유지한 뒤, 가구ID를 기준으로 개인 응답을 커플 단위로 재구조화하였다. 같은 가구 내에서 가구대표 또는 배우자가 중복 응답한 경우에는 개인ID 또는 연령을 기준으로 1명만 남기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대표의 성별에 따라 남편/아내 변수를 일관되게 재정렬하여 최종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맞벌이·동거부부로 구성된 부부 표본 3,743쌍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 52.69세, 아내 50.27세로, 부부 내 연령차(남편-아내)의 평균은 2.42세로 남편이 아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 = 51.55, p < .001$),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는 20.1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남편의 경우 대졸 이상이 57.23%, 아내는 47.64%로 남편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였다. 부부 내 교육수준의 분포는 남편과 아내 간에 동일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tuart-Maxwell $\chi^2 = 213.03, p < .001$), 특히 ‘남편 대졸 이상-아내 고졸 이하’ 조합(482쌍)이 ‘남편 고졸 이하-아내 대졸 이상’ 조합(123쌍)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종사상 지위는 남편은 상용근로자(58.19%)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7.79%)의 비중이 큰 반면, 아내는 상용근로자(49.05%) 외에 임시근로자(17.21%)와 무급가족종사자(12.9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부 내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남편과 아내 간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tuart-Maxwell $\chi^2 = 697.71, p < .001$), 이는 종사상 지위의 분포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상이함을 시사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560만 원이었다.

부부가 보고한 관계 및 태도 변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 인식은 남편과 아내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t = .53, p = .597$), 성역할 태도는 남편 평균이 아내보다 유의하게 높아(남편 2.83, 아내 2.65; $t = 15.25, p < .001$) 남편이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더 강하게 보였다. 부부관계의 질은 남편(3.95)이 아내(3.9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 = 5.20, p < .001$), 부부관계 만족도도 남편(3.78)이 아내(3.65)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 = 13.39, p < .001$). 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5개 영역 모두에서 아내의 수행 시간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길었으며(모든 영역 $p < .001$), 특히 음식 준비, 의류 손질, 청소 영역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은 음식 준비, 의류 손질, 청소, 상품 구입, 가정관리의 5개 영역을 기반으로 산출하였다. 영역별로 ‘수행 여부(예/아니오)’와 ‘주 평균 수행 횟수’, ‘1회 평균 소요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주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을 0으로 처리하였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 평균 수행 횟수와 1회 평균 소요시간을 곱하여 영역별 주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산출하였다.

표 1. 맞벌이 부부의 일반적 특성

(N = 3,743)

		남편	아내	χ^2/t
평균 연령(세)		52.69(.19)	50.27(.19)	51.55***
교육수준(명)	고졸 이하	1,601(42.77)	1,960(52.36)	213.03***
	대졸 이상	2,142(57.23)	1,783(47.64)	
12세 미만 자녀 유무(명)	없음		2,989(79.86)	
	있음		754(20.14)	
종사상 지위(명)	상용 근로자	2,178(58.19)	1,836(49.05)	697.71***
	임시 근로자	203(5.42)	644(17.21)	
	일용 근로자	54(1.44)	69(1.8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23(5.96)	96(2.5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40(27.79)	612(16.35)	
	무급가족종사자	45(1.20)	486(12.98)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560.43 (207.18)		
주관적 계층 인식(점)		2.51(.01)	2.51(.01)	.53
성역할 태도(점)		2.83(.01)	2.65(.01)	15.25***
부부관계의 질(점)		3.95(.01)	3.92(.01)	5.20***
부부관계 만족도(점)		3.78(.01)	3.65(.01)	13.39***
주평균 가사노동시간(분)	음식 준비	69.08(2.04)	456.38(4.97)	-71.75***
	의류 손질	30.58(.80)	129.96(1.64)	-55.31***
	청소	46.09(.85)	125.30(1.68)	-42.71***
	상품 구입	49.24(.81)	88.41(1.10)	-31.94***
	가정관리	28.05(.65)	32.40(.66)	-5.15***

주. 12세 미만 자녀 유무는 아내 기준.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잠재유형 도출을 위해 가사노동의 구조적 특성을 총량과 격차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총량은 부부 단위에서 가사노동의 부담 수준을 보여주고, 격차는 가사노동 분담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두 지표를 동시에 살펴봐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영역별로 부부합(남편 + 아내)을 산출하여 가사노동 총량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아내-남편의 차이를 산출하여 가사노동 격차를 구성하였으며, 이 값이 양(+)일수록 아내의 부담이 더 큰 분담 구조를 의미하도록 설정하였다. 전체 5개 영역 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총량과 격차 변수를 산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에는 영역별 총량 5개 지표와 영역별 격차 5개 지표를 투입하였으며, 지표 간 분산 차이에 따른 영향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각 변수를 z-score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Van Lissa, Garnier-Villarreál, & Anadria, 2024).

2)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5점 척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5점(매우 만족)까지이며, 값이 높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플 자료로 재구성한 이후 남편과 아내의 자기보고 값을 각각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류민영, 정현숙, 2023; 손보영, 김수정, 2020; 오성은, 허수연, 2021; Lee & McKinnish, 2018).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종사상 지위, 연령의 구조를 반영한 부부 평균 연령과 부부 연령 격차, 12세 미만 자녀 유무(아

내 기준),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보고한 부부관계의 질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남편·아내 연령을 동시에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부 평균 연령과 부부 연령격차로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은 친밀감, 신뢰, 상호지지, 존중 등 관계의 기능적 특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관계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부부관계 만족도는 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로 측정되는 별도의 구성개념으로 사용된다(Funk & Rogge, 2007; Norton, 1983). 실제로 부부관계의 질과 만족도는 남편($r = .46$)과 아내($r = .53$)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공유분산은 각각 20.97%와 27.77% 수준으로 두 변수가 서로 관련되면서도 동일한 구성개념으로 완전히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예측변수로 부부관계의 질을 모형에 함께 포함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은 “귀하와 배우자의 관계에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자료는 친밀감, 신뢰, 관심사·취미활동 공유,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정, 상호 도움 요청 가능, 의견 존중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관심사·취미활동 공유에 관한 문항은 평균값이 다른 문항과 이질적이며, 6문항의 신뢰도 계수가 남편은 .73, 아내는 .76인 반면 해당 문항을 제외할 경우에는 신뢰도 계수가 남편은 .76, 아내는 .78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심사·취미활동 공유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부부관계의 질 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커플 자료 재구성 이후 남편과 아내의 자기보고 값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구조를 반영하는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잠재유형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18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가사노동 구조의 잠재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수행하였다. LPA에는 영역별 가사노동 총량(부부합) 5개 지표와 격차(아내-남편) 5개 지표를 투입하였으며, 각 지표는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모형 추정에는 gsem의 잠재계층 옵션(lclass)을 활용하여 2개부터 10개까지의 잠재유형 모형을 순차적으로 추정한 뒤, 적합도 지표를 비교하여 군집 수를 검토하였다. 다만 적합도 지표는 K 가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표만으로 군집 수를 결정하지 않고, (1) 각 잠재유형의 표본 비율(집단 크기), (2) 유형 간 구분의 명확성 및 해석 가능성, (3) 유형의 실질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군집 수를 선정하였다(Nylund-Gibson & Choi, 2018).

그 결과 $K = 4$ 모형은 모든 잠재유형의 비율이 5% 이상으로 확보되어 소집단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고, 동시에 유형 간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여 해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K = 4$ 모형에서 각 개인(커플)의 사후확률을 산출한 뒤, 최대 사후확률(maximum posterior probability)에 근거하여 잠재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도출된 4개 잠재유형은 집단별 인구학적 특성과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총량 및 격차)의 평균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집단의 의미를 해석하고, 유형명을 부여하였다.

둘째, 잠재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남편 부부관계 만족도와 아내 부부관계 만족도로 각각 설정하였고, 주요 독립변수로 잠재유형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남편·아내의 종사상 지위, 부부 평균 연령과 연령 격차, 12세 미만 자녀 유무, 남편·아내 성역할 태도, 그리고 남편·아내가 각각 보고한 부부관계의 질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오차는 부부 단위로 군집화하여 이분산 및 부부 단위 상관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잠재유형 선정 및 분류의 적절성

표 2는 LPA에서 잠재유형 수(K)를 2개부터 10개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추정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적합도 지표를 보면, K 가 증가할수록 로그우도는 개선되고 AIC와 BIC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적합도 지표만을 기준으로 하면 군집 수는 더 큰 K 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LPA에서 흔히 관찰되는 패턴으로, 적합도 지표만으로 군집 수를 결정할 경우 과도하게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분류 명확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는 .85 ~ .91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최대 사후확률(AvePP)도 .90 내외로 추정되어 전반적으로 유형 분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1) 유형별 표본 비율(소집단 여부), (2) 유형 간 구분의 명확성 및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K = 4$ 모형은 모든 잠재유형의 비율이 5% 이상으로 확보되어 소집단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고, $K = 4$ 모형에서는 고총량-아내편중 집단 내에서도 편중이 집중되는

하위 영역이 수행중심과 관리 중심으로 구분되어 $K = 3$ 모형에서 평균화될 수 있는 이질성이 포착된 것으로 판단하여 $K = 4$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표 3 참조). 분류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최대 사후확률의 분포를 점검한 결과, 평균이 .93으로 높았고, 중앙값은 .99로 나타나 대다수 표본에서 분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의 특징 및 유형 명명

그림 1과 그림 2는 $K = 4$ 모형에서 남편과 아내의 영역별 가사노동 총량 및 격차의 평균 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LPA 추정에는 표준화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유형의 실질적 의미를 해석하고 명명하기 위해 원척도(분 단위) 평균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4개 잠재유형은 총량과 격차 수준이 서로 다른 형태로 구분되었다. 유형 1(68.18%)은 5개 영역 총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격차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1은 가사노동 총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성별 격차가 존재하되,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정도가 완만한 구조를 보이는 유형으로, ‘저총량-완만격차형(기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잠재유형 수별 모형 적합도 비교

($N = 3,743$)

모형	ll(model)	df	AIC	BIC	Entropy	AvePP
LPA 2	-50,652.16	31	101,366.30	101,559.40	.91	.98
LPA 3	-49,873.25	42	99,830.50	100,092.10	.85	.94
LPA 4	-49,101.67	53	98,309.33	98,639.40	.87	.93
LPA 5	-48,449.28	64	97,026.57	97,425.14	.89	.93
LPA 6	-47,849.87	75	95,849.74	96,316.81	.89	.92
LPA 7	-47,362.80	86	94,897.60	95,433.18	.90	.92
LPA 8	-46,670.62	97	93,535.24	94,139.32	.90	.91
LPA 9	-46,372.77	108	92,961.55	93,634.13	.89	.90
LPA 10	-45,795.12	119	91,828.23	92,569.32	.89	.90

표 3. $K = 4$ 모형의 잠재유형 분포

($N = 3,743$)

잠재유형	빈도(명)	비율(%)
class 1	2,552	68.18
class 2	235	6.28
class 3	218	5.82
class 4	738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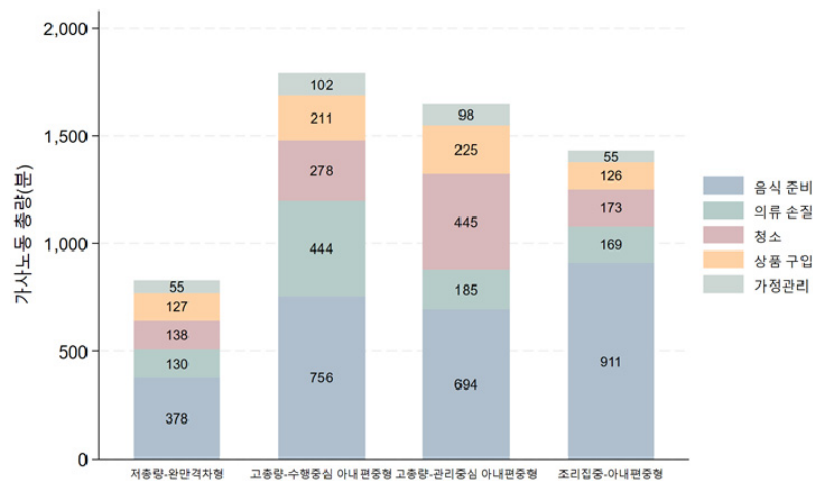


그림 1. K = 4 모형의 유형별 가사노동 총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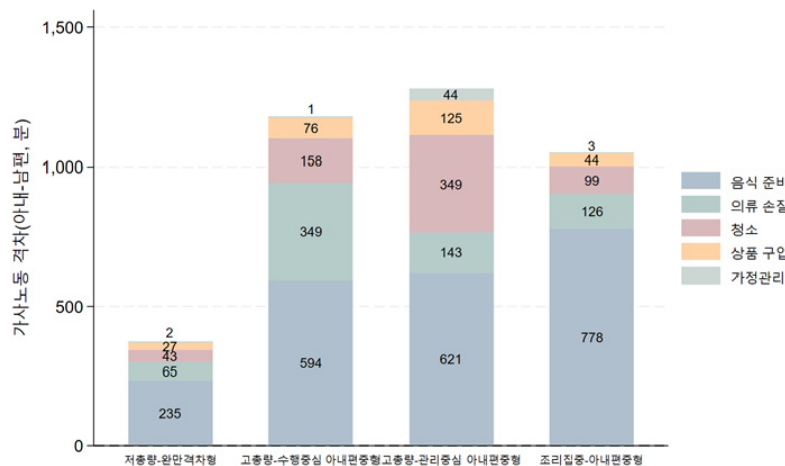


그림 2. K = 4 모형의 유형별 가사노동 격차(아내-남편) 비교

유형 2(6.28%)는 총량이 전반적으로 높고, 동시에 격차도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가사노동 총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조리·청소·의류 손질 등 수행 중심 가사노동 영역에서 아내의 부담이 두드러지는 구조를 보이는 유형으로,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5.82%)은 가사노동 총량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수행영역 전반에서 아내의 과중한 부담이 나타날 뿐 아니라 상품 구입과 가정관리 등 관리영역에서도 아내 편중이 확인되는 구조를 보이는 유형으로,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 4(19.72%)는 가사노동 총량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음식 준비 영역에서 아내의 부담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조리집중-아내편중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총량 수준, 부부 격차의 방향,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하위 영역을 결합하여 최종 유형명을 확정하였다. 즉 유형 1은 저총량-완만격차형, 유형 2는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3은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4는 조리집중-아내편중형으로 확정하였다.

3.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별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비교

표 4는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첫째, 연령 측면에서 유형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부부 평균연령은 조리

집중-아내편중형에서 가장 높고(54.17세), 유형 1 ~ 3은 50 ~ 51세 수준으로 유사하였다($F = 17.01, p < .001$). 이는 음식 준비 영역에서 아내 부담이 두드러지는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부부집단에서 나타나는 가사노동 배분 구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12세 미만 자녀 유무는 유형별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5.51, p < .01$).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27.66%)과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

(25.23%)에서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은 가장 낮았다(17.34%). 이는 어린 자녀가 존재할수록 가사노동 총량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총량 자체가 크고 아내 부담이 확대되는 유형(2, 3)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연관은 ‘자녀 유무 → 유형’의 인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자녀를 둔 가구에서 관찰되는 생활리듬·돌봄수요 증가가 특정 분담 구조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4.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별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비교

(N = 3,743)

구분	유형 1 저충량-완만격차형	유형 2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3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4 조리집중-아내편중형	χ^2/F
<i>n</i>	2,552	235	218	738	
부부 평균연령(세)	50.78	50.66	51.46	54.17	17.01***
남편 평균연령(세)	51.92	52.03	52.76	55.55	18.30***
아내 평균연령(세)	49.64	49.28	50.16	52.78	15.29***
부부 연령격차(세)	2.27	2.76	2.60	2.78	7.33***
12세 미만 자녀 있음(%)	19.83	27.66	25.23	17.34	15.51**
남편 고졸 이하	40.87	41.70	34.86	52.03	35.31***
남편 대졸 이상	59.13	58.30	65.14	47.97	
아내 고졸 이하	49.65	51.91	45.41	63.96	51.55***
아내 대졸 이상	50.35	48.09	54.59	36.04	
남편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	58.86	60.00	56.88	55.69	37.04**
임시 근로자	5.88	2.13	7.80	4.20	
일용 근로자	1.37	3.40	2.75	.6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15	7.23	5.96	4.8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6.65	25.53	26.15	32.93	
무급가족종사자	1.10	1.70	.46	1.63	
아내 종사상 지위(%)					
상용 근로자	50.67	49.36	49.54	43.22	51.30***
임시 근로자	16.58	15.74	19.72	19.11	
일용 근로자	1.88	2.55	1.38	1.6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90	3.83	2.29	1.0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77	15.74	15.14	15.45	
무급가족종사자	11.21	12.77	11.93	19.51	
월평균 가구소득(만 원)	563.10	582.29	589.17	535.71	5.94***
남편 주관적 계층 인식	2.50	2.63	2.57	2.49	3.16*
아내 주관적 계층 인식	2.50	2.60	2.58	2.48	2.62*
남편 성역할 태도	2.79	2.75	2.93	2.97	10.43***
아내 성역할 태도	2.63	2.44	2.65	2.77	10.16***
남편 부부관계의 질	3.94	4.05	4.00	3.96	5.24**
아내 부부관계의 질	3.90	4.03	3.96	3.93	5.78***

* $p < .05$. ** $p < .01$. *** $p < .001$.

셋째, 교육수준에서도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남편 교육 $\chi^2 = 35.31, p < .001$; 아내 교육 $\chi^2 = 51.55, p < .001$). 특히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은 남편·아내 모두 고졸 이하 비율이 높았고(남편 52.03%, 아내 63.96%), 반대로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은 대졸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남편 65.14%, 아내 54.59%).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가사노동 배분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상대적으로 교육자원이 낮은 집단에서 관찰되는 분담 구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종사상 지위에서도 유형별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다(남편 $\chi^2 = 37.04, p < .01$; 아내 $\chi^2 = 51.30, p < .001$). 남편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전반적으로 상용 근로자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32.93%)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에는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9.51%), 유형 1 ~ 3은 11 ~ 13% 수준이었다. 이는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노동시장 지위 측면에서 아내의 취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가족사업 참여 형태가 결합된 생활양식 속에서 음식 준비 중심의 가사노동 부담이 강화되는 집단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섯째, 월평균 가구소득은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589만 원)과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582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낮은 편(536만 원)이었다($F = 5.94, p < .001$). 유형 간 소득 차이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확인되며, 이후 회귀 모형에서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 효과와 유형 효과가 동시에 고려되므로, 소득 차이 자체를 유형의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형별 사회경제적 배

정의 차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성역할 태도는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고(남편 2.97, 아내 2.77),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은 아내 성역할 태도가 가장 낮은 편(2.44)으로 나타났다(남편 $F = 10.43, p < .001$; 아내 $F = 10.16, p < .001$). 이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에서 아내 부담 중심의 분담 구조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의 질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남편 $F = 5.24, p < .01$; 아내 $F = 5.78, p < .001$). 남편의 부부관계의 질은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4.05)에서 가장 높고, 저충량-완만격차형(3.94)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3.96)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은 4.00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부부관계의 질 역시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4.03)에서 가장 높고,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3.96), 조리집중-아내편중형(3.93), 저충량-완만격차형(3.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배분 유형에 따라 부부가 지각하는 관계의 질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차이

표 5와 표 6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사노동시간 배분 유형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의 수준과 유형 효과로서 다르게 나타났다. 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평균을 보면(표 5 참조), 남편 만족도 평균은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이 가장 높고(3.83),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3.73)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유형 간 평균 차이가 크지

표 5. 유형별 부부관계 만족도 평균 및 응답 분포

(단위: 점, %)

구분	유형 1 저충량- 완만격차형	유형 2 고충량- 수행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3 고충량- 관리중심 아내편중형	유형 4 조리집중-아내편중형
<i>n</i>	2,552	235	218	738
남편 만족도 평균	3.79	3.83	3.75	3.73
아내 만족도 평균	3.66	3.58	3.68	3.61

표 6. 잠재유형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 차이

(N = 3,743)

변수	남편 부부관계 만족도		아내 부부관계 만족도	
	B	SE	B	SE
잠재유형(기준=유형 1)				
유형 2	-.04	.03	-.17***	.04
유형 3	-.07*	.04	-.02	.04
유형 4	-.06**	.02	-.06*	.02
부부 평균 연령	-.01***	.00	-.00***	.00
연령격차	.00	.00	.00	.00
12세 미만 자녀 있음	-.04	.02	-.03	.03
남편 종사상 지위(기준 =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11*	.04	-.12*	.05
일용 근로자	.09	.09	-.02	.0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2	.04	-.00	.0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5	.03	-.07*	.03
무급가족종사자	-.03	.07	-.21*	.09
아내 종사상 지위(기준 =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00	.03	-.07*	.03
일용 근로자	-.03	.08	-.08	.0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	.06	-.01	.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	.03	-.04	.03
무급가족종사자	.05	.03	.03	.03
월평균 가구소득	.05	.00	-.00	.00
남편 주관적 계층 인식	.03	.02	.03	.02
아내 주관적 계층 인식	.01	.02	.00	.02
남편 성역할 태도	.00	.01	-.03*	.01
아내 성역할 태도	.02	.01	.07***	.01
남편 부부관계의 질	.39***	.03	.13***	.03
아내 부부관계의 질	.25***	.03	.62***	.03
상수	1.46***	.13	.88***	.13
F		41.66***		55.80***
Adjusted R ²		.26		.31

 * $p < .05$. ** $p < .01$. *** $p < .001$.

않아, 단순 평균 비교만으로 뚜렷한 격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아내 만족도는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이 가장 낮고(3.58), 저충량-완만격차형과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총량이 크고 아내에게 부담이 전반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에서 아내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기술통계 수준에서도 관찰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표 6 참조)에서 잠재유형 효과를 보면, 기준집단인 저충량-완만격차형 대비 어떤 유형에서 만족도가 낮아지는지가 보다 명확해진다. 남편 만족도 모형에서는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B = -.07, p < .05$)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B = -.06, p < .01$)이 저충량-완만격차형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반면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총량이 큰지 여부 자체보다는, 가사노동이 특정 영역에서 어떻게 불균형하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관리영역까지 아내에게 편중되거나 음식 준비 중심으로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남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남편 관점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단순한 시간 총량보다도 ‘불균형의 위치(어느 영역에서 편중이 발생하는가)’와

더 밀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해석은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에서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저충량-완만격차형 대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이는 가사노동의 시간적 부담 자체보다는, 상품 구입과 가정 관리 등 가정 운영과 관련된 관리영역까지 아내에게 편중된 구조가 남편의 관계적 기여감 및 역할 인식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내 만족도 모형에서는 유형 효과가 더 뚜렷했다.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이 기준형 대비 가장 크게 낮았고($B = -.17, p < .001$), 조리집중-아내편중형도 유의하게 낮았다($B = -.06, p < .05$). 반면,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내의 경우에는 수행영역의 편중보다는 가사노동 총량 자체가 크고 관리영역이 전반적으로 아내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만족도 저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음식 준비 중심의 편중에서도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맞벌이 상황에서 총량이 많고(일이 많고), 수행영역의 일을 내가 더 떠안는 구조가 아내의 관계 만족도에 특히 취약하게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통제변수 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두 모형 모두에서 가장 일관되고 큰 관련을 보인 변수는 부부관계의 질이었다. 남편 만족도 모형에서는 남편이 보고한 부부관계의 질($B = .39, p < .001$)과 아내가 보고한 관계의 질($B = .25, p < .001$)이 모두 유의하게 정(+)의 관련을 보였고, 아내 만족도 모형에서는 아내가 보고한 관계의 질($B = .62, p < .001$)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강하게 연동되며, 이러한 관계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가사노동 배분 유형 자체가 추가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부 평균연령은 남편·아내 모두에서 음(-)의 관련을 보였고($p < .001$), 일부 종사상 지위는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배분 구조를 반영하는 잠재유형을 도출하고, 유형에 따라 남편·아내의 부부관계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가사노동 배분 구조는 저충량-완만격차형(기준형),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적합도 지표는 K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형별 표본 비율, 구분의 명확성 및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K = 4$ 모형을 채택하였다. 평균 최대 사후확률은 .93으로, 분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성을 보면,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아내 만족도가 고충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저충량-완만격차형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남편 만족도는 고충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단순한 가사노동 총량이 아니라, 총량·격차·영역 편중이 결합된 배분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가사노동 총량과 성별 격차, 영역별 편중이 결합된 배분 구조의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일한 맞벌이 조건 하에서도 가사노동 총량이 낮고 격차가 완만한 유형과 총량이 크거나 특정 영역에서 아내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유형이 구분된다는 점은, 가사노동을 평균적 시간 차이나 이분법적 공평·불공평 구도로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전체의 다수를 차지한 저충량-완만격차형은 가사노동 총량이 비교적 낮고 격차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유형에서는 총량이 증가하거나 격차가 확대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시간 제약이 큰 생활 조건

에서 가사노동의 총량이 축소되거나 외부 자원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저총량-완만격차형이 성평등한 분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을 단순히 ‘분담이 공평한가/불공평한가’로만 평가하기보다, 총량이 커지는 생활 조건과 격차가 확대되는 배분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리·청소 등 일상적·반복적 과업이 성별 분업과 결합되기 쉽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 (Coltrane, 2000), 본 연구에서 확인된 수행영역 편중 및 조리집중 유형은 가사노동 내에서도 과업의 성격과 영역이 중요한 구분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사노동 배분 구조와 부부관계 만족도의 관련 양상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의 경우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에서 만족도 저하가 가장 뚜렷했으며, 이는 가사노동의 ‘일이 많고(고총량) 수행영역의 일을 내가 더 떠안는(수행영역 고격차)’ 구조가 아내의 관계 만족도에 취약하게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고총량-수행중심 아내편중형보다는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과 조리집중-아내편중형에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남편 관점에서 관계 만족도가 가사노동의 어느 영역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지는지(관리영역/조리영역 편중)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맞벌이 조건 안에서도 ‘어떤 형태의 불균형인가’에 따라 남편·아내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에서 저총량-완만격차형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가사노동의 절대적인 시간 부담이나 아내의 전반적 과중 여부보다는, 상품 구입과 가정관리 등 가정 운영의 핵심적인 관리영역까지 아내에게 편중된 분담 구조가 남편의 관계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리영역 가사노동은 수행영역 가사노동과 달리 가정의 자원 배분, 일상 유지, 문제 예방과 같은 운영·조정 책임을 포함하는 영역

으로, 누가 이 영역을 담당하는가는 ‘누가 가정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인가?’라는 관계적 의미와 직결된다. 이러한 관리영역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고정될 경우, 남편은 직접적인 노동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가정 운영 과정에서의 기여감 약화, 역할 주변화, 관계적 주체성의 제한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은 수행 중심 가사노동의 편중을 넘어, 가정 운영 전반의 책임까지 아내에게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남편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가사노동 분담의 양적 불균형이 아니라 관계 내 역할 구조의 비대칭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남편·아내 모두에서 유의한 만족도 저하와 관련되었다는 점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리 영역은 반복성과 일상성이 강하고, 가족의 생활리듬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조리영역에서의 편중이 단순한 시간 증가를 넘어, 부부관계 만족도와 연결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가사노동 지원 정책이나 가족교육·상담 장면에서, 가사노동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접근과 더불어 조리·식사 준비처럼 핵심 생활 영역을 특정하여 부담 구조를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부부관계의 질이 남편·아내 모두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가장 강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은 만족도가 관계 요인과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질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형 효과가 유의하게 남아 있다는 점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개인의 관계 평가만으로 환원되기보다 일상생활의 노동 배분 구조(총량·격차·영역 편중)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를 이해하고 개입을 설계할 때, 관계적 요인과 함께 생활 영역에서의 부담 구조를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틀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이 단일한 평균 격차나 총량으로 설명되기보다, 총량·성별 격차·영역별 편중이 결합된 구조적 유형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사노동의 평균적 시간 차이나 전반적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분석해 온 기존 연구와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하지만, 동일한 총량 조건에서도 영역별 편중 방식에 따라 관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얼마나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어떤 구조로 배분되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하여 분석 단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역시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관계 만족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존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총량이나 전반적 격차 수준을 중심으로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설명해 왔다면, 본 연구는 수행영역과 관리영역의 편중 양상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즉, 가사노동의 양적 불균형 자체보다도 ‘어떤 영역에서의 편중인가’가 관계 만족도와 결합하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상징적·구조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확장하는 데 본 연구의 기여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가사노동 총량을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행영역(조리·청소·의류 손질 등)과 관리영역(상품 구입·가정관리 등)에서의 편중 구조를 함께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총량을 낮추는 접근이 일정한 효과를 가지더라도, 특정 영역에서 한 쪽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 관계 만족도와 긴장 요인이 남을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시간의 크기뿐 아니라, 반복성과 필수성이 높은 핵심 과업 및 계획·조정·점검과 같은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총량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핵심 생활영역의 책임이 한쪽에 고정되면 상대적으로 기여의 가시성·인정 가능성이 낮아지고, 당사자는 자신의 부담이 당연시되거나 과소평가된다고 느끼기 쉬운데, 이러한 경험은 ‘책임과 기여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라는 공정성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사분담에 대한 공정성 인

식은 배우자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아내의 가사노동시간·근로시간 부담이 커질수록 공정성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노혜진, 2024), 단순한 도움 캠페인보다는 시간 가용성을 실제로 바꾸는 장치(유연근무·시차출퇴근·초과근로 관리 등)와 남성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는 직장문화·제도 개선을 결합하는 접근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일 수 있다.

둘째, 조리집중-아내편중형이 남편·아내 모두의 만족도 저하와 연결된 점을 고려할 때, 식사 준비·식생활 관리처럼 일상성이 강하고 반복되는 핵심 과업을 대상으로 부담 완화와 분담 재구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패키지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족센터에서 부부 역할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리 부담을 단순한 조리 시간으로만 다루기보다 식단 계획-장보기-준비-조리-정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 차원에서는 맞벌이 가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사·식생활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실천적으로 적합하다. 조리 부담은 물리적 수행량뿐 아니라 계획·조정 책임(정신적 부하)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슬기, 김주현, 2025), ‘누가 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계획하고 관리하는가’까지 포함해 개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총량-관리중심 아내편중형에서 남편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는 시간 투입의 불균형뿐 아니라 가정 운영의 주체성과 책임 배분이 관계 만족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실천 현장에서는 관리영역을 보이지 않는 가사로 남겨두기보다, 부부 공동의 운영 과업으로 가시화하고 분담 규칙을 합의·점검하는 개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교육·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정 운영 체크리스트 공동 작성, 주 1회 운영 미팅, 예산·구매 결정 규칙 설정과 같은 구체적 장치를 제시하면 분담이 수행노동의 일부로만 축소되지 않고 가정 운영 전반의 공동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개입 단위이며, 유형별 특성에 직접 대응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과 실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를 사용하여 가사노동 배분 유형과 부부관계 만족도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특정 방향의 인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가사노동시간은 영역별 수행 여부, 수행 빈도, 소요시간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회상 오류나 응답 편향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변화 양상 검토 등을 통해 결과의 견고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총량과 격차에는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의 가사지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사에 관한 외부 자원의 활용 등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맥락을 포괄적으로 확장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을 총량이나 단일 격차 지표로만 환원하지 않고 총량과 격차, 영역 편중을 결합한 잠재유형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유형별로 부부관계 만족도와 관련 양상이 남편·아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얼마나 하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배분되는가(총량·격차·영역)’를 함께 고려하는 분석 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개인의 태도나 노력 문제가 아니라, 생활시간구조와 역할 배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가족정책과 관계 지원 개입이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 접근을 확장하여, 유형별로 어떤 생활조건과 자원이 결합될 때 관계적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기은광, 이기영 (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61-75.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또는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영란, 최인희, 주재선, 정가원, 김소영, 배호중, 박미진, 권도연, 최진희, 이지성 (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주희, 이기영 (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 노혜진 (2024).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의 분담에 대한 부부의 공정성 인식과 배우자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71(1), 143-170. <https://doi.org/10.16975/kjfs.w.2024.71.1.143>
- 류민영, 정현숙 (2023). 기혼남녀의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32(4), 393-407. <https://doi.org/10.5934/kjhe.2023.32.4.393>
- 손문금 (2011).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및 여가 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16(1), 1-25.
- 손보영, 김수정 (2020).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다중역할 경험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 326-333. <https://doi.org/10.5762/KAIS.2020.21.11.326>
- 안미영, 최지은 (202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유자녀 부부의 일가정양립 유형과 변화와 관련 요인 분석: 근로, 가사노동, 돌봄의 역할 분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1), 93-117. <https://doi.org/10.20970/kasw.2024.76.1.004>
- 오성은, 허수연 (2021). 남편의 자녀양육참여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고용형태 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1), 35-61. <https://doi.org/10.16975/kjfs.w.2021.68.1.002>
- 오유라 (2025). 맞벌이 부부의 시간빈곤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래사회*, 16(2), 1-15. <https://doi.org/10.22987/jifso.2025.16.2.1>
- 유계숙, 강수향, 오아림, 이주현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이슬기, 김주현 (2025). 가사노동의 새로운 이해: 유자녀 맞벌이 부부의 정신적 부하와 젠더화된 책임. *가족과 문화*, 37(1), 99-127. <https://doi.org/10.21478/family.37.1.202503.004>
- 이승미, 이현아 (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이재림 (2022). 맞벌이 가구의 구성과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84-93.
- 이현아, 권순범 (2023).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30대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화.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3), 67-75. <https://doi.org/10.22626/jkfma.2023.27.3.005>
- 이현아, 김은정, 김유경 (2022). 가사노동과 돌봄정책.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인수 (2020).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446-476.
<https://doi.org/10.15709/hswr.2020.40.2.446>
- 조보배 (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2(1), 121-146.
<https://doi.org/10.33949/tws.2022.112.1.005>
- 주익현 (2018). 남편의 가사활동이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97(2), 141-166.
<https://doi.org/10.33949/tws.2018.97.2.005>
- 최하영, 진미정 (2020). 맞벌이 부부 남녀의 일·생활 갈등 영향요인: 일·생활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7(3), 79-107.
<https://doi.org/10.15284/kjhd.2020.27.3.79>
- 허수연, 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https://doi.org/10.16975/kjfs.2019.64.001>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1208.x>
- Flood, S. M., & Genadek, K. R. (2016). Time for each other: Work and family constraints among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1), 142-164.
<https://doi.org/10.1111/jomf.12255>
- Funk, J. L., & Rogge, R. D. (2007). Testing the ruler with item response theory: Increasing precision of measurement for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couples satisfaction index.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572-583.
<https://doi.org/10.1037/0893-3200.21.4.572>
- Lee, W. S., & McKinnish, T. (2018). The marital satisfaction of differently aged coupl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2), 337-362.
<https://doi.org/10.1007/s00148-017-0658-8>
- Norton, R. (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41-151.
<https://doi.org/10.2307/351302>
- 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440-461.
<https://doi.org/10.1037/tps0000176>
- Perry-Jenkins, M., Repetti, R. L., & Crouter, A. C. (2000). Work and family in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81-998.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0981.x>
- Van Lissa, C. J., Garnier-Villarreal, M., & Anadria, D. (2024). Recommended practices in latent class analysis using the open-source R-package tidy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31(3), 526-534.
<https://doi.org/10.1080/10705511.2023.2250920>
- Voydanoff, P. (2005). Work demands and work-to-family and family-to-work conflic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26(6), 707-726.
<https://doi.org/10.1177/0192513X05277516>